

세무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2014년 2월 pp.63~82
한국세무학회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

배한수** · 배병한***

<요 약>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개선되면 회계부정이 감소하며, 최근에는 이들 변수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들 변수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한계점을 적절히 보완하여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경영자지분율)와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관리인력수)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감리지적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지 실증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감리지적을 받은 거래소 상장기업 54개와 대응기업 162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관리인력수 각각이 개선되면 감리지적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전체표본에 대한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관리인력수의 상호작용은 감리지적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거래소 유형을 구분하여 재분석한 결과,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이 감리지적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부정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코스닥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가 상호 간의 한계점을 적절히 보완하여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기업지배구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상호작용효과, 회계부정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BK21+ Post Doc, baehs@knu.ac.kr, 053-950-7322, 주저자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bhbae@knu.ac.kr, 053-950-5879, 교신저자

I. 서 론

엔론사와 월드컴사의 회계분식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회계부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대우그룹의 회계분식과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였으며, 한화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과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로 인한 코스닥 등록 취소 등의 사건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부정이 취약한 내부통제와 기업지배구조로 발생되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내부통제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¹⁾

학계에서도 내부통제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회계부정의 영향요인을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여부, 내부회계관리인력의 특성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나 내부통제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대리인 비용을 방지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경영자에게 행해지는 총체적 감시체제와 동기부여체제라는 측면에서 소유구조, 이사회 특성, 감사인 특성, 경영자보상 등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으나²⁾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지배구조의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재무제표 왜곡의도가 감소하여 재무보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결국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증가하여 감리지적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각각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에서는 강력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며(Krishnan 2005 ; Zhang et al. 2007 ; Hoitash et al. 2009 ; 김용식 외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이후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역시 개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최종원 · 전경민 2012).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들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지 실증분석한다.

-
- 1) 미국에서는 2002년 SOX를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포함한 회계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비율 증가 등의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2005년 6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강제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 2) 학자들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김현동 2013) 기업지배구조의 측정방법이나 조작적 정의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경영자의 재무제표 왜곡의도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회계부정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2005).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재무제표 왜곡의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가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간의 상호 긍정적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한다.

1.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부정

기업지배구조는 Jensen and Meckling(1976)의 고전적 대리인 이론(이해일치가설)을 통해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³⁾ 대리인 이론에서는 기업을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계약관계의 집합체로 보고 있으며,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지배권이 전문경영자에게 이전되어 기업은 전문경영자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Berle and Means 1937).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영모델에서는 유능한 전문경영자가 효율적 경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불균형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경영자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Jensen and Meckling 1976). 결국 대리인 이론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정보불균형, 경영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여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김재승·차승민 2013). 대리인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로 Demsetz(1983)은 경영자지분율이 높아지면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함을 발견하였으며, 신준용·변동헌(2002)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정구열 외(2002)는 지배주주지분율과 이익의 정보효과 간의 양의(+)의 관련성을 증명하여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영자지분율이 높아져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화되어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결국 대리인 문제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대리인 이론 측면에서 회계부정은 주주에 비해 정보우위에 있는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지분율이 증가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감소하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3) 대리인이론은 이해일치가설 이외에도 이익침해가설, 절충가설, 무관관가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해일치가설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정의하였기 때문에 다른 가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또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경영자 감시비용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유발될 수 있지만(Grossman and Hart 1980)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경영자 감시를 위해 본인의 자원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Shleifer and Vishny 1986) 감시비용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며, 결국 경영자의 재무제표 왜곡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회계부정이 감소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경영자지분율이 증가하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이 감소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 1. 경영자지분율이 증가하면 감리지적 가능성이 감소한다.

2. 내부회계관리인력의 특성과 회계부정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가 많으면 기업활동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인력의 특성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다(홍창목·정진향 2012). 예로 Choi et al.(2010)은 내부회계관리인력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할 가능성과 재량적발생액의 수준이 감소함을 증명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가 많은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재무보고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준일 외(2010)는 내부회계관리인력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감사보수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인력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와 통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감사인에게 더욱 엄밀한 감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채수준 외(2012)는 내부회계관리인력의 규모가 크고, 평균경력월수가 길며, 내부회계관리인력 중 공인회계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것을 입증하였다. 문두철 외(2013)는 내부회계관리인력의 경력이 높을수록 감리지적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내부회계관리 경력이 높은 인력일수록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상현 외(2013)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와 인력수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및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내부회계 공시전문인력 중 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는 대체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및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킴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인력을 보강하면 업무의 적절한 분담, 회계기능에 대한 적시성 있는 검토가 가능해지며, 이러한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재무제표 왜곡의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제고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내부회

계관리인력의 수가 증가하면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감소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2를 수립하였다.

가설 2.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가 증가하면 감리지적 가능성이 감소한다.

3.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기업지배구조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지배구조의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는 우수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된다. Krishnan (2005)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을 기업규모, 경영성과 등 기업의 고유한 경제적 특성(기업규모, 경영성과 등)과 통제체제인 기업지배구조(주주, 경영자, 소유구조, 이사회 특성 등)의 함수로 표현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감소함을 입증하였다. Goh(2009)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규모가 큰 기업이 중요한 취약점을 더 신속하게 수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도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가 포함되거나(Zhang et al. 2007), 회계사 파트너 경험이 있는 감사위원이 존재하거나(Naiker and Sharma 2009), 회계 및 감독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증가할수록(Hoitash et al. 2009)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2010)은 CFO가 회계사가 아니거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이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경우가 많으며, 취약점 보고 이후 CFO가 교체되는 경향이 높은 점을 보고하였다. 특히 전문성이 더 높은 CFO로 교체되는 경우에만 중요한 취약점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 김용식 외(2007)는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영자지분율 구간별로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일 외(2011)는 이사회의 규모가 크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가 높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일부 부서의 내부회계관리인력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지배구조의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낮으며, 취약점이 보고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속히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더 엄정한 내부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숫자의 내부통제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이준일 외 2010),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 주주와 경영인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경영자에 대한 총체적 감시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배구조의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인력수를 증가시키고, 전문적이고 경력이 긴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된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경영자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지배구조의 통제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면 이사회 의 독립성과 경영 전문성이 증가하고,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stone et al.2011). 국내 연구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이 낮은 기업은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며(이명곤 외 2007),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과 감리지 적 가능성이 증가한다(최종원·전경민 2012). 또한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이사회 의 규모, 독립성, 전문성 및 감사위원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기업지배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이후 이익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최종원·전경민 2012).

요약하면 선행연구에서는 중요한 취약점 보고여부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으로 간주하였 으며, 연구결과 시장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 즉 내부통제의 수준이 낮은 기업을 부 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 하려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에 대한 의 견을 표명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이로 인해 권한이 있는 경영자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무시하거나 우회하여 회계부정을 발생시킬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 도상 한계점을 적절히 보완하여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상술한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는 상호 긍정 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 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해 가설 3을 수립하였다.

가설 3.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관리인력수의 상호작용은 감리지적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Ⅲ. 연구설계

1. 표본의 선정

2006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 상장법인에 강제 적용되어 감사인은 피감사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분석기간은 2006년부터 2011 년까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감리지적을 받은 거래소 상장

법인이다.

- 1) 금융·증권·보험업에 속하는 기업
- 2) 결산일이 12월이 아닌 기업
- 3) 부채비율이 1 이상인 기업
- 4)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기업

금융·증권·보험업은 영업의 특징과 재무제표 구성항목이 일반기업과 상이하며, 12월말 미결산 기업은 결산시점의 차이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은 자본잠식으로 간주하여 재무자료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감리지적 기업은 54개이며, 표본수의 확장을 위해 대응표본으로 감리지적 기업과 동일한 시장과 업종 및 자산규모가 유사한 기업을 감리지적 기업의 3배수인 162개를 선정하였다. <표 1>의 표본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216개 기업-년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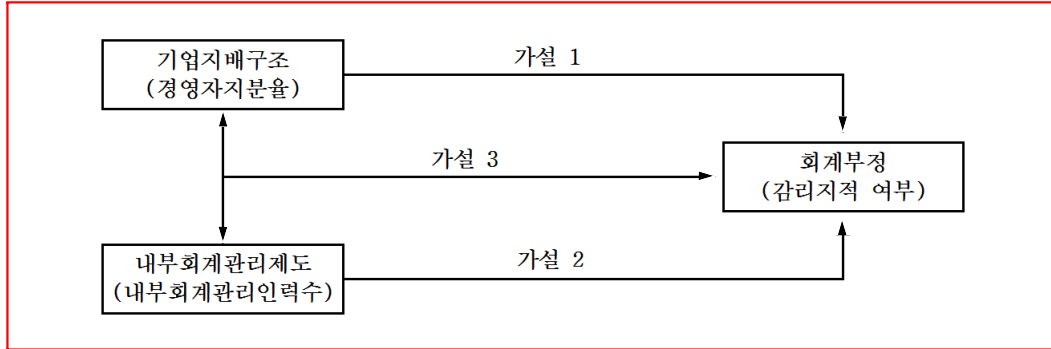
〈표 1〉 표본선정과정

	코스피	코스닥	계
감리지적 기업	20	57	77
12월 말 결산이 아닌 기업		(2)	(2)
금융업, 증권업, 보험업	(2)	(2)	(4)
부채비율 1 이상	(1)	(2)	(3)
자료측정 불가	(2)	(12)	(14)
감리지적 기업 소계	15	39	54
대응표본	45	117	162
분석을 위한 최종표본	60	156	216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 독립적 영향(가설 1, 가설 2)과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설 3)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식(1)~식(3)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REV_{t+1} = \beta_0 + \beta_1 MAN_t + \beta_2 BIG_t + \beta_3 AUD_t + \beta_4 SIZE_t + \beta_5 LEV_t + \beta_6 CFO_t + \varepsilon \quad \text{식(1)}$$

$$REV_{t+1} = \beta_0 + \beta_1 ICR_t + \beta_2 BIG_t + \beta_3 AUD_t + \beta_4 SIZE_t + \beta_5 LEV_t + \beta_6 CFO_t + \varepsilon \quad \text{식(2)}$$

$$REV_{t+1} = \beta_0 + \beta_1 MAN_t + \beta_2 ICR_t + \beta_3 MAN \times ICR_t + \beta_4 BIG_t + \beta_5 AUD_t + \beta_6 SIZE_t + \beta_7 LEV_t + \beta_8 CFO_t + \varepsilon \quad \text{식(3)}$$

여기서,

REV :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MAN : 경영자지분율

ICR : $\ln(1 + \text{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

BIG : 최대주주지분율

AUD : 감사인이 해외법인과 제휴하였으면 1, 아니면 0

$SIZE$: $\ln(\text{총자산})$

LEV : 총자산 대비 총부채

CFO : 총자산 대비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식(1)과 식(2)는 MAN 과 ICR 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들 변수 각각이 REV 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며, 회귀분석 결과에서 MAN 과 ICR 의 추정회귀계수 ($\hat{\beta}_1$)가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된다. 식(3)은 회계부정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MAN 과 ICR 의 상호작용항의 추정회귀계수($\hat{\beta}_3$)가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 3은 지지된다. MAN 과 ICR 이외에 REV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마희영 외(2012)가 사용한 BIG , AUD , $SIZE$, LEV , CFO 를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⁴⁾

4) 선행연구에서는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순손실여부(LOSS) 등으로 측정한 기업의 수익성(경영성과)

IV. 실증분석 결과

1. 단일변량분석

감리지적 기업과 대응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관심변수인 MAN, ICR, MAN×ICR의 평균이 감리지적기업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감리지적 기업은 대응기업에 비해 경영자지분율이 낮고(소유와 경영의 괴리가 크며),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가 작으며, 감리지적 가능성에 대한 MAN×ICR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가설의 방향과 의미상 일치하며,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 MAN, ICR, MAN×ICR이 REV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편, 통제변수는 SIZE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평균이 감리지적 기업과 대응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⁵⁾ 이를 통해 감리지적 기업은 대응기업에 비해 최대주주지분율(BIG)이 낮아 지분이 분산되어 있으며, 부채비율(LEV)이 높아 장기적 안정성이 낮고, 외부 감사인이 해외법인과 제휴하지 않아(AUD) 감사품질이 낮은 기업이 많으며, 현금주의 측면에서 수익성(CFO)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2> 감리지적 기업과 대응기업 간의 차이분석 결과

변 수	Levene의 F	평 균		t-stat
		감리지적기업(n=54)	대응기업(n=162)	
MAN	15.696***	0.040	0.142	-5.098***
ICR	1.373	2.003	2.285	-3.024***
MAN×ICR	11.321***	0.078	0.321	-4.778***
BIG	0.274	0.185	0.268	-3.501***
AUD	54.219***	0.241	0.469	-3.231***
SIZE	2.011	25.065	25.044	0.104
LEV	8.829***	0.523	0.400	3.363***
CFO	11.024***	-0.082	0.011	-2.582***

주) * p<0.1, ** p<0.05, *** p<0.01,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역시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ROA는 CFO와 높은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LOSS는 명목척도로 REV와 척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CFO만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유의한 조인을 주신 심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5) SIZE의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SIZE가 대응표본 선정기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 기술통계량

<표 3>은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감리지적 기업의 3배수로 대응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REV의 평균이 0.25로 나타났다. MAN의 평균이 12%로 대부분의 경영자가 대주주이며, 최대 65%의 지분을 소유한 경영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ICR은 자연로그값이기 때문에 실제 치(RealICR)를 함께 제시하였다. RealICR을 통해 기업은 평균 2명 정도의 내부회계관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편차가 다른 변수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기업들 간 인력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RealICR의 최소값이 0으로 표본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RealICR이 0인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담인력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거하지 않았다.⁶⁾ 한편 AUD의 평균이 0.412로 나타나 해외법인과 제휴하지 않은 감사인에게 감사서비스를 받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표본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평 균	표준편차
REV	0.000	1.000	0.000	0.250	0.434
MAN	0.000	0.653	0.027	0.116	0.206
ICR	0.000	4.078	2.197	2.215	0.605
RealICR	0.000	58.000	8.000	2.215	0.605
MAN×ICR	0.000	6.503	0.057	0.260	0.530
BIG	0.019	0.814	0.247	0.212	0.154
AUD	0.000	1.000	0.000	0.412	0.493
SIZE	22.712	28.723	25.050	24.744	1.259
LEV	0.022	0.973	0.431	0.411	0.208
CFO	-1.360	0.262	-0.013	0.016	0.176

주) RealICR : 실제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6)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강제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RealICR이 0인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감리대상연도가 2007년 이후이며, 2009년 이후 감리지적을 받았다. 즉, 이들 기업은 회계부정이 발생된 시점이 2007년 이후이며, 이 시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전담인력 구성이 강제화된 시기이다.

3. 상관관계분석

<표 4>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연구가설의 방향과 동일하게 REV는 MAN, ICR, MAN · ICR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는 SIZE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표 4> 전체표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전체표본, n=216)

	REV	MAN	ICR	MAN×ICR	BIG	AUD	SIZE	LEV	CFO
REV	1								
MAN	-0.215***	1							
ICR	-0.202***	0.022	1						
MAN×ICR	-0.199***	0.980***	0.094	1					
BIG	-0.233***	0.173**	0.095	0.137**	1				
AUD	-0.201***	-0.092	0.182***	-0.086	0.263***	1			
SIZE	0.007	-0.035	0.348***	-0.001	0.240***	0.368***	1		
LEV	0.257***	-0.139**	0.061	-0.124*	0.020	-0.043	0.197***	1	
CFO	-0.229***	0.143**	0.234***	-0.140**	0.181***	0.204***	0.351***	-0.164**	1

주) * p<0.1, ** p<0.05, *** p<0.01,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표 5>와 <표 6>은 표본을 거래소 유형별로 구분한 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표 5)에서 관심변수는 모두 REV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분석(표 6)에서는 관심변수와 REV의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표본에서 관심변수와 REV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이유는 코스닥 기업으로 인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코스피 기업에서 관심변수와 REV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코스피 기업의 수가 코스닥 기업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코스피 기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n=60)

	REV	MAN	ICR	MAN · ICR	BIG	AUD	SIZE	LEV	CFO
REV	1								
MAN	-0.093	1							
ICR	-0.186	0.057	1						
MAN · ICR	-0.084	0.996***	0.073	1					
BIG	-0.284**	0.011	-0.045	0.009	1				
AUD	-0.212	-0.151	0.199	-0.144	0.293**	1			
SIZE	0.032	0.047	0.435***	0.063	0.126	0.562***	1		
LEV	0.319**	-0.245*	-0.024	-0.222*	0.039	0.026	0.152	1	
CFO	-0.196	0.135	0.366***	0.127	0.265**	0.286**	0.514***	-0.045	1

주) * p<0.1, ** p<0.05, *** p<0.01,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표 6〉 코스닥 기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n=156)

	REV	MAN	ICR	MAN · ICR	BIG	AUD	SIZE	LEV	CFO
REV	1								
MAN	-0.330***	1							
ICR	-0.221***	0.024	1						
MAN · ICR	-0.353***	0.841***	0.353***	1					
BIG	-0.214***	0.373***	0.161**	0.254***	1				
AUD	-0.199**	-0.028	0.149*	0.000	0.229***	1			
SIZE	-0.009	-0.032	0.189**	-0.016	0.282***	0.213***	1		
LEV	0.236***	-0.040	0.077	-0.013	-0.019	-0.100	0.165**	1	
CFO	-0.273***	0.130	0.144*	0.172**	0.147*	0.190**	0.327***	-0.239***	1

주) * p<0.1, ** p<0.05, *** p<0.01,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표 7〉은 REV에 대한 MAN과 ICR의 상호작용효과 검증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수행한 Sub Group Analysis의 결과이다. 7) MAN과 ICR의 상호작용이 REV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면 MAN(ICR)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였을 경우, 중위수 이상 집단에서의 ICR(MAN)과 REV의 상관계수가 음(-)의 유의한 값이 나타나야 하며, 중위수 이하의 집단에서는

7) 위의 분석(표 5, 표 6)에서 MAN · ICR의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가 코스닥 기업으로 인한 현상이라 판단하여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만 Sub Group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중위수 이상의 집단에서보다 낮아져야 한다. 분석결과, MAN이 중위수 이상인 집단에서는 ICR과 REV의 상관계수가 -0.246 으로 유의하며, 중위수 이하의 집단에서는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ICR이 중위수 이상인 집단에서는 MAN과 REV의 상관계수가 -0.345 로, 중위수 이하의 집단에서는 -0.303 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상관계수는 유의하며, 특히 ICR이 중위수 이상인 집단에서 이하인 집단에서 보다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⁸⁾ 이를 통해 MAN(ICR)이 높은 집단에서만 ICR(MAN)과 REV의 관련성이 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에 MAN · ICR의 상호작용이 REV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7〉 Sub Group Analysis 결과(코스닥, n=156)

	전체표본(n=156)	MAN 중위수 이상(n=79)	MAN 중위수 이하(n=77)
	ICR		
REV	-0.221^{***}	-0.246^{**}	0.290
	전체표본(n=156)	ICR 중위수 이상(n=95)	ICR 중위수 이하(n=61)
	MAN		
REV	-0.330^{***}	-0.345^{***}	-0.303^{***}

주) * $p<0.1$, ** $p<0.05$, *** $p<0.01$,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마지막으로 MAN과 MAN · ICR의 상관계수가 모든 상관관계분석에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두 변수 간 높은 다중공선성이 우려된다. 이에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나머지 독립변수들의 상관계수는 모두 0.6미만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우려할만한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4. 회귀분석결과

〈표 8〉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모든 분석에서 Model X^2 가 유의하여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3)의 Model X^2 와 Cox & Snell R^2 가 식(1)과 식(2)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에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식(1)과 식(2)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MAN과 ICR의 회귀계수(β_1)가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 1과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경영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소수

8) 그러나 두 상관계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isher's $Z = -0.28$, $P = 0.3897$)

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에 의한 재무제표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감리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감소되며, 이는 전통적 대리인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Jensen and Meckling 1976 ; Demsetz 1983 ; 신준용·변동현 2002 ; 정구열 외 2002). 또한 내부회계관리인력을 보강하면 업무의 적절한 분담, 회계기능에 대한 적시성 있는 검토가 가능해지 때문에 재무제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여 감리지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의미상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Choi et al. 2010 ; 이준일 외 2010 ; 채수준 외 2012).

〈표 8〉 회귀분석 결과(n=216)

변수	식(1)		식(2)		식(3)	
	β	Wald	β	Wald	β	Wald
Intercept	-5.964	2.099	-10.408	6.340***	-7.053	2.424
MAN	-6.598	8.673***			-6.942	8.477***
ICR			-0.905	7.684***	-1.147	4.558**
MAN×ICR					-3.347	0.435
BIG	-0.031	4.960**	-0.039	7.938***	-0.032	5.033**
AUD	-1.023	4.743**	-0.939	4.375**	-1.023	4.391**
SIZE	0.208	1.514	0.450	6.425**	0.351	3.561*
LEV	2.460	7.368***	2.523	7.966***	2.514	7.443***
CFO	-1.642	2.097	-2.099	3.042*	-1.420	1.453
Model X^2	51.325***		47.012***		59.570***	
Cox & Snell R^2	0.211		0.196		0.241	

주1) $MAN \times ICR_t = (MAN_t - MAN\text{의 평균}_t) \times (ICR_t - ICR\text{의 평균}_t)$

주2) * $p < 0.1$, ** $p < 0.05$, *** $p < 0.01$,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MAN과 ICR의 상호작용항은 REV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 3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앞의 상관관계분석에서 KOSDAQ 기업에 대해서는 MAN×ICR과 REV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에서 MAN×ICR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가 거래소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거래소 유형을 구분하여 식(3)에 대한 회귀분석을 재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KOSDAQ 기업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MAN×ICR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9〉 거래소 유형을 구분한 후의 회귀분석 결과(n=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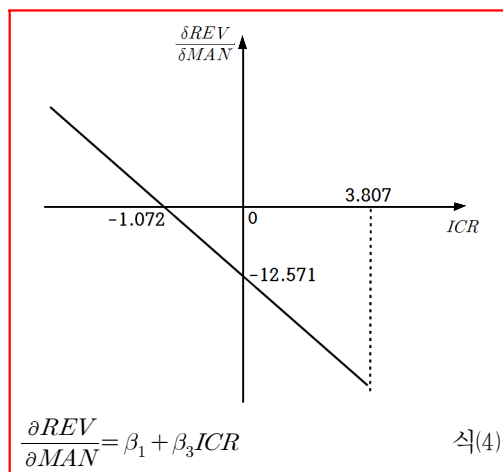
	KOSDAQ(n=156)		KOSPI(n=60)	
	β	Wald	β	Wald
Intercept	-9.053	1.550	-18.262	4.462**
MAN	-12.571	11.515***	-1.712	0.093
ICR	-1.801	7.810***	-0.748	0.500
MAN×ICR	-11.722	3.354*	1.888	0.052
BIG	-0.033	2.354	-0.045	2.761*
AUD	-0.733	1.605	-2.018	3.112*
SIZE	0.501	2.654	0.730	4.216**
LEV	2.838	5.880**	3.687	3.844**
CFO	-3.468	3.037*	-1.234	0.614
Model X ²	53.859***		20.302***	
Cox & Snell R ²	0.292		0.287	

주1) $MAN \times ICR_t = (MAN - \text{MAN의 평균}_t) \times (ICR - \text{ICR의 평균}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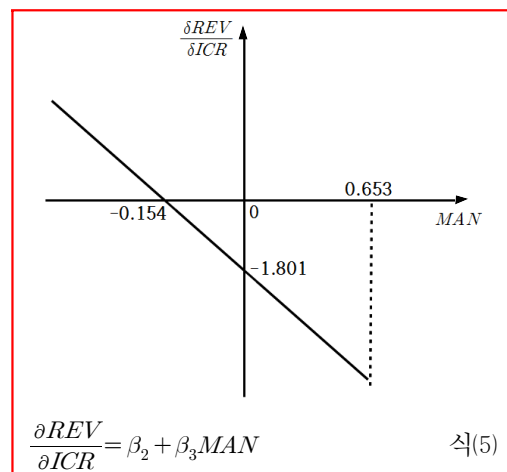
주2) * $p < 0.1$, ** $p < 0.05$, *** $p < 0.01$,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MAN과 ICR의 상호작용을 가시화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에 대해 다음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식(3)을 MAN과 ICR 각각에 대해 편미분하면 식(4)와 식(5)로 치환된다. 식(4)와 식(5)에 <표 9>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추정회귀계수를 대입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 <그림 4-2>와 같다.

〈그림 4-1〉 MAN에 대한 편미분 그래프



〈그림 4-2〉 ICR에 대한 편미분그래프



<그림 4-1>에서 ICR이 -1.072 이하의 구간에서는 ICR이 증가하며, MAN이 증가할수록 REV의 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1.072 이상의 구간에서는 ICR이 증가하면 MAN이 증가할수록 REV의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ICR이 -1.072 이상의 구간에서만 MAN과 ICR의 상호작용이 REV를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ICR은 내부회계관리인력수를 의미하므로 최소값은 0이며, 기술통계량에서 제시한 바와 최대값이 4.078이므로 그래프 상에서 ICR이 0에서 4.078의 범위가 MAN과 ICR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해당구간에서는 MAN의 크기와 관계없이 MAN이 증가할 때, ICR 값이 높아질수록 REV는 낮아지게 되며, 이는 MAN과 ICR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그림 4-2>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MAN의 최소값(최대값)이 0(0.653)이므로 ICR의 크기와 관계없이 $MAN \times ICR$ 은 REV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코스닥 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인력수와 경영자지분율의 상호작용이 감리지적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영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의 운영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감사(위원회) 운영규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역시 개선된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회계부정 유인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로 회계부정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V. 결 론

선행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가 강화되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이 효과적으로 감소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는 상호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작용은 회계부정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각각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고, 나아가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인력의 수 및 감리지적 여부를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관리인력수 각각이 높아지면 감리지적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인력수의 상호작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거래소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재수행한 결과, 코스닥 기업에서는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스닥 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가 상호 간의 한계점을 적절히 보완하여 경영자의 재무제표 왜곡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지적 가능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가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추가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재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작용효과 분석방법을 통해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이 특정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의 시사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코스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감리지적을 받은 코스피 기업의 수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표본수를 확장하여 분석을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수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만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향후 이사회 특성, 소유구조, 경영자 보상 등의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관련변수를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 역시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만을 반영하였다. 향후 중요한 취약점의 존재 여부, 종업원 수 대비 담당인력 수의 비율, 담당인력 중 공인회계사 비율 또는 공인회계사 포함여부 등의 다양한 변수를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본 연구에서 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용식 · 황국제 · 김유찬. 2007. “기업의 경제적 특성과 지배구조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미치는 효과”. 회계와감사연구 제46권 : 249-275.
- 김재승 · 차승민. 2013. “경영자의 4분기 이익조정과 기업지배구조”.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3호 : 217-252.
- 김현동. 2013.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 81-110.
- 마희영 · 박성종 · 허광복 · 이만우. 2012.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 91-113.
- 문두철 · 박우진 · 이상일. 2013.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감리지적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 279-308.
- 신준용 · 변동현. 2002. “기업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1권 제3호 : 67-85.
- 이명곤 · 최상태 · 장석진.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 이익조정 그리고 정보위험과의 관련성”. 회계와감사연구 제46권 : 61-97.
- 이준일 · 선우혜정 · 최종학. 2011. “연구논문 : 기업지배구조가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 숫자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 1-33.
- 이준일 · 최종학 · 최선화. 20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와감사연구 제51권 : 153-187.
- 정구열 · 권수영 · 백원선. 2002. “기업소유구조와 이익의 정보효과”. 경영학연구 제31권 제6호 : 1707-1727.
- 지상현 · 류예린 · 이균봉. 201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회계 · 공시전문인력 및 인력의 전문성 여부에 따른 이익조정 현상”.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1호 : 1-35.
- 채수준 · 이호영 · 유혜영. 2012.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인적자원 특성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7권 제1호 : 229-265.
- 최종원 · 전경민. 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연구-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1권 제4호 : 135-161.
- 홍창목 · 정진향. 2012.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수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속성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 327-354.
- Berle, A. A., and G. C. Means. 1937.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 Macmillan.
- Choi, J. H., S. Choi, C. Hogan, and J. Lee. 2010.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n the existenc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on earnings quality. Unpublished Working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msetz, H. 1983.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 375.

- Goh, B. W. 2009. Audit committees, board of directors, and remediation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2) : 549–579.
- Grossman, S. J. and O. D. Hart. 1980. Takeover Bids, The Free–Rider Problem, and the Theory of the Corpor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1(1) : 42–64.
- Hoitash, U., R. Hoitash and J. Bedard. 2009.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A comparison of regulatory regimes. *The Accounting Review* 84(3) : 839–867.
- Jensen, M. C.,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 305–350.
- Johnstone, K., C. Li, and K. H. Puley. 2011.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ed with the revelation of internal control material weaknesses and their subsequent remedi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1) : 331–383.
- Krishnan, J. 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80(2) : 649–675.
- Li, C., L. Sun, and M. Ettredge. 2010. Financial executive qualifications, financial executive turnover, and adverse SOX 404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1) : 93–110.
- Naiker, V. and D. Sharma. 2009. Former audit partners on the audit committee and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The Accounting Review* 84(2) : 559–587.
- Shleifer, A., and Vishny R. 1986.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 461–488.
- Zhang, Y., Zhou, N. and Zhou. 2007. Audit committee quality, auditor independence, and internal control weaknes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6(3) : 300–327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Accounting Fraud*

Bae, Han Soo** · Bae, Byung Han***

—〈Abstract〉—

Prior evidence that higher-quality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reduce the accounting fraud leaves unaddressed the interaction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that.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both in documenting a negative association among accounting fraud,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interaction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 used 216 samples that were listed on KOSPI and KOSDAQ(54 audit review firms, 162 matched firms).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higher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re also found to occur less accounting fraud.

Second, interaction of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has non-significant effect on that. But, after separating samples into KOSPI and KOSDAQ, the interaction has negative effect on that only in KOSDAQ samples.

Specially,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ne mechanism to supplement the limit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by improving governance for monitoring manager's incentives to distort financial statement.

〈Key word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interaction effect, accounting fraud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3

** Post Doc, BK 2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